

안부

유수현

지옥 같은 감염증은 모두에게 나뻐다. 처음에는 남 일 같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그럼에도 내 일은 아닌' 것 같았으며 기어코 우리의 일이 되어버린 병의 이름. 받침 없이 건조한 그 세 음절 뒤로 형용하지 못할 불안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청춘과 최선은 굳이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낱말이면서도 끈질기게 붙어 다녔다. 청춘,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젊음을 누려야 해. 섬광처럼 빛나면서도 겸손하고 푸르게 훑날리는 봄이었다가 금세 앞길을 묵묵히 닦아 놓은 가을이 되어야 해. 철없음과 성숙함을 동시에 강요받는 우리는 위태로우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목 놓아 웃을 수 있었다.

그 무렵 나는 다른 감염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름. 사진 속으로나 존재했던, 혈관 한 구석에나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었던 아빠의 부고와 함께였다. 쓸데없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어느 교수님보다도 젊음 그 자체보다도 무거운 과제를 준 셈이었다.

나는 왜 좌절할까. 단 한 번도 그의 것인 적 없는데 버림받았다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카드 짝을 맞추듯이, 그러나 이미 오래전 한 장을 잃어버려 홀수인 것을 두고 내내 무너졌다. 나는 나의 슬픔을 해명해야만 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문제에 답을 찾느라 바빴다. 채 지문도 읽어 내리지 못한 심정인 나에게 선불리 던져지는 위로들이 따갑고 아팠다. '많이 허전하고 아프지?' 아니, 나는 온전했다. '속상해서 어떻게 해.' 애당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긴 했었나? '다 잊힐 거야.' 어떻게 제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고 그렇게 말 할 수 있

지?

당시 일기에서 나는 스스로를 곧잘 '지지대가 뺏혀 나간 녀쿨'이나 '섬'으로 묘사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화된 것을 좋아하기도 했다. 그만큼 철저히 혼자이고 싶었고 괜한 애정을 담아 자꾸만 나를 밖으로 꺼내려는 친구들에게 응당한 거절을 하고 싶었다.

내가 필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위로가 맞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말들은 몽땅 틀렸다. 나는 사랑한 적 없으므로. 간절했던 것은 그저 나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다. 껴안아 줄 품이었다. 구경꾼이나 말 많은 입술 두 쪽이 아니라. 애뜻한 자식의 마음이라는 틀에 끼워 넣어 나를 재단할 손아귀가 아니라.

그렇다고 항상 불행하지는 않았다. 휴학을 하고, 대신에 일을 했다. 냉정하기 그지없는 돈 쪼가리가 가끔은 나를 위로해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렸고 내게 그렇게 큰 관심까지는 없는 미지근한 관계들에 의지했다. 밤이면 이유 모를 추위에 아까운 눈물을 훔치면서도 날이 밝은 후에는 용케도 즐거웠다. 새로운 공간에서 나는 꼭 슬퍼야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불쌍하지도 않았고, 위태로워서 걱정해야 할 사람도 아니었다. 그게 희열을 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비어있었다. 텅 비어서 누군가 '너 괜찮냐'고 통통 마음을 두드린다 해도 심심한 대답 한 마디 해내지 못할 만큼. 나는 많은 사람을 원망했다. 언젠는 귀찮고 형편없어서 대충 아, 괜찮다고 밀어내던 사람의 온기가 아쉬워진 꼴이라니. 열과 성을 다해 미워한 온갖 것들 가운데서 최고는 나였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내게는, 그래, 감염증처럼, 나를 잡아먹을 듯 머리 위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이제야말로 정말 관찮아진 것처럼 나를 내버려두다가 간헐적으로 저작운동을 했다. 나는 처참하게 뭉개지고 부서지고 잘근잘근 씹혀서 끝내는 그 어금니 틈에 널브러진 채로 다음, 또 다음의 아픔을 기다렸다. 위 아래로 솟구쳤다가 잠잠해지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신호들은 생동감이다. 심장의 바이탈사인 혹은 주식의 주가변동이나 땅으로부터 전달받는 S파 같은 것. 그러나 나에게서는 죽음의 신호였다. 안에서부터 끓아가고 있다는 감염의 신호.

그래도 확실히 시간은 위대했다. 아무 내색 없이 무심한 흙바닥 아래로 이따금 믿을 수 없는 삶의 흔적을 화석으로나마 발견하듯이. 고통에 찬 울부짖음도 환희와 축제의 떠들썩함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차곡차곡 묻혀갔다. 나는 더 이상 답을 찾지 않았다. 언뜻 포기한 것도 같았지만 시야는 포기를 양분삼아 넓어졌다.

때로 이해하기보다는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서류 한 장짜리 '종이아빠'를 사랑하고, 있지도 않았던 그의 빈자리에 상실감을 느끼고, 영정사진에 담긴 두 뺨과 눈동자에서 무심결에 읽히는 삶의 흔적을 발견할 때에 거기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당연히 미래에도 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끝끝내 받아들이게 되는 일처럼. 이유 없는 슬픔 또한 슬픔이며 감정을 저울에 올릴 수 있는 심판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하여 내가 아프다면 아픈 것이 맞다는 시시하고 당연한 깨달음과 마주하는 것처럼.

나의 유레카는 시간을 대가로 가져갔다. 스물 하나. 스물 둘. 주변의 친구들이 사랑과 우정과 경험에 헌신할 때에 나는 거울 속 나에게 헌신했다. 추운 밤 나를 보듬어 안아주고 좋아하는 것들을 사고 행복한

일을 했다. 지지대 없는 넝쿨에는 묘목을 심어주고 외딴 섬에는 별을 수놓아주었다. 너, 죽지 말라고. 너를 사랑하는 이들을 원망과 질타어린 시선으로 상처주지 말라고.

사랑
받으라고.

나는 이름 맨 앞자리가 바뀌었다. 누가 보나 굳이, 라는 말을 꺼낼만한 일이었고 심문을 받으러 가 마주한 판사님마저도 굳이,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모른다. 매일같이 변했다. 어느 날은 지나치게 슬퍼하고 아파한 나머지 내 이름 석 자에도 설움이 붙어 그런 것 같다가도, 어느 날에는 그저 엄마의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고 싶었다. 그런가하면 또 문득 아빠에 대한 미움인가. 또 문득, 내 의지는 물어있지 못했던 그와의 관계에 직접 무언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혹은 전부일까? 그저 내가 '느낀'것은 함부로 나를 평가하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종이 위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으레 그렇듯 축하를 받았다.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해. 무슨 말을 들어도 서늘하게 굳기만 했던 심정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메마른 땅 마냥 내게 향한 애정을 잘도 받아 마셨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가끔 새벽에도 깨어나 이 기쁨이 행여 꿈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나를 괴롭히던 부재중 연락들은 이번에는 따스하고 든든한 지지로 남았다. 그때부터 어렵풋하게나마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의 고독이 무엇을 말미삼아 자라났는지.

편지를 받았다. 소중한 것도 없고 별 다를 것도 없던, 심지어는 꼬박 이년을 소식 한 번 전해듣지 못한 이로부터의 선물이었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다른 것 없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함께 축하해주고 싶었노라고.

그런데, 잘 지내냐고.

나는 뜨겁게 울었다. 내내 외면 받던 내가 갑자기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왜 그리도 늦게 알았을까. 나를 걱정하는 이들도, 내 상황도, 그들의 눈빛도 소문도 어느 하나 잘못 한 것 없이 다만 위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어쩔 까맣게 몰랐을까. 사랑을 내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비어있는 내 안을 채워야 한다는 걸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나.

‘안부’의 따뜻함이 참 놀랍다. 보잘 것 없이 숨어 있는 조심스럽고 은근한 호의가 사랑스럽다. 일상이 녹아 없어지고 화면을 마주해야만 진득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삶 속에서, 가야할 곳을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었던 수많은 작고 사소한 인연들에게서 만남은 너무도 귀해졌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요해지는 우리의 오늘 내일에 인사치레라 여겨졌던 안부 한 마디가 전해주는 그 성의가 또 놀랍다.

그 자그마한 보통의 것이 마치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잊기 힘든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나 했다. 무심코 ‘잘 지내냐’는 직선 몇 개가 겹쳐진 글자들로 우리는 또 누군가의 오늘을, 그렇게 내일을 구원해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생은 간혹 허무맹랑할 정도로 사소하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묻겠다.

오늘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나요? 혹여 서글픈 감염증을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당신의 발걸음에 미움과 슬픔이 묻어 있다 해도 두 발이 걸어갈 다음 모퉁이에 이른 봄꽃이 피어있기를

언제고 이 글을 읽은 당신을 위해,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